

서울의 명품빌라 부산 주거 특구에 상륙하다!



대연동 태흥이오니아빌 [남향]32형, 47형

Open

■ 살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내집 마련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 교통, 환경, 교육의 특구

대연동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2분이면 충분합니다.

■ 빌리다운 미려한 외관

내부의 마감가치가 확실히 달릅니다.

■ 편리한 용지대출

특별한 조건의 웅자. 분양가의 60%대출은 기본. 집의 가치때문에 추가 대출 협의 가능

■ 분양사무실 : T.757-2644. H.P.011-9505-8111



태흥종합건설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3동 1073, TEL:051-757-2644 FAX:051-757-2643
E-mail:taeheung@thcon.co.kr http://www.thcon.co.kr



도심속의 명당에 자리했습니다.

남천동 태흥스위트빌라 [남향]30형, 32형

Open

■ 도심속의 명당

지하철 역의 1분거리에 위치했습니다.

■ 공기, 해수욕장, 교육

황령산 맑은 공기와 자연 광안리 해수욕장이 5분거리!

최고의 교육 특구입니다.

■ 남향, 외장마감

전세대가 남향이고 내·외장 마감이

서울의 명품 빌라와 같습니다.

■ 편리한 용지대출

특별한 조건의 웅자. 분양가의 60%대출은 기본. 집의 가치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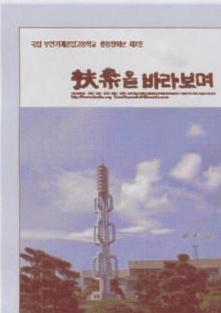
에 추가대출 협의 가능

■ 분양사무실 : T.626-7541. H.P.018-760-4568



태흥종합건설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3동 1073, TEL:051-757-2644 FAX:051-757-2643
E-mail:taeheung@thcon.co.kr http://www.thcon.co.kr



2호 표지설명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부상을 바라보며' 와
'기능탑'을 주제로 출신 동문들의 기상을 표현하였다.

포토그래피, 디자인 : 새론기획 이남연
T.051-245-9817 H.P.011-853-9817
<http://www.saeronet.co.kr>



3호 표지설명
단풍지(丹楓池) 단풍이 곱게 물든 체육관 앞의 연못,
주제인 '부상을 바라보며' 와 단풍나무 를 주제로 하
여, 변화하는 동문들의 모습과 연못에 비친 단풍 그림
자로 짐작력을 표현하였다.

포토그래피, 디자인 : 새론기획 이남연 / 정명훈
T.051-245-9817 H.P.011-853-9817
<http://www.saeronet.co.kr>

1천원으로 자부심을…!

많은 동문들이 "나는 부산기공인임을 자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동문들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동안의 우리 동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을 때, 그 말을 부정할 동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부산기계공과 동문임을 자부한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동창회의 도약을 위해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월 1천원이면 우리 동창회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자립이 동창회 활성화의 토대입니다.

동창회장단이나 동문들의 찬조에 의존하는 동창회는 탈피되어야 합니다.

동창회장의 재력에 따라 부침하는 동창회가 아닌, 2만3천여 전 동문이 만들어가는 동창회를 만들시다.

우리 동창회는 졸업기수 33회에 동창회 역사 30년이라는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의 조직을 반석위에 올리는 길은 전 동문이 참여하여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1인당 월 1천원이면 1년에 1만2천원이며, 동문 1만명만 참여해도 연간 1억2천여만원이란 거액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의 운영뿐 아니라 동창회보의 월간 발행도 가능하며, 홈페이지도 여느 유명사이트 못지않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동기회나 지역동문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후배 기수 또는 대학동문회 지원, 모교의 장학사업 등 체계적인 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동문 1인당 월 1천원의 회비로 가능합니다.

납부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동창회비의 납부를 휴대전화 요금에 병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동문께서는

1. 동창회 사무국으로 전화통지 또는 팩스 051-746-6747로 송부
2. 동창회 홈페이지 www.bmths.org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란을 수정하면서 동의 여부를 확인
3. e-mail: samukuk@hanmir.com으로 동의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무선·인터넷 조회기
기능정 개설, 명의 변경,
자동이체서비스

KOCES

SPEED-2002S SPEED-2002T

한국신용카드결제(주)
부산·경남 대리점 정화M&A

대표 정동현(17회 금속과)
H.P.011-573-3197 Tel.051-324-6121 Fax.051-313-2150
<http://www.ikoces.com> email:jdhyeun@kornet.net

瑞進精密
SEOJIN PRECISION CO.
TUNGSTEN CARBIDE TOOLS

代表 金興基 (9회 기계과)
H.P.011-223-3608

본사·공장 우.421-80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68-10
Tel.032-682-3608(代) Fax.032-682-4862
부산영업소 Tel.(051-528-1247(代))

<http://www.seojinpr.com> Email:hunggi@seojinpr.com

扶桑을 바라보며 동창회 소식/사진으로 보는 행사



-실내에서의 '기능탑 제전'



-줄다리기/너무 힘쓰지 마셔! 체육관 벽 무너질라!



-족구대회/멋진 품!! 회장님 화이팅!



-사생대회/정답게 화가의 꿈을 키우며!



-사생대회/천재 화가의 출현?



-사생대회/대상 정지영 어린이/족구경기 너무 멋져요.



-장기자랑/전지현이 왔다가 뒷문으로 나갔다는거 아닙니까.



-완전 13회 날이구먼!



-시상식/ 종합우승 13회/ 밤새 해운대를 누비고도 기운이 남아 있었구먼!



-팔광 주막/ 경기에 참석은 않고 주막에 놀라앉아 있음 어떡해?



-팔광 주막/ 역시 찌짐이 최고여!



-골프대회/ 대회를 마치고



-골프대회/ 내 스윙 품이 어떻노?



-김천일 사진전/ 작품을 설명하는 김천일 동문

〈동창회 소식〉

●5회동기회 장학금 전달

5회동기회(회장 박연수)에서 매년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5회동기회 장학금 수여식이 10월 20일 제30차 기능탑제전의 개회식장에서 있었다.

금년에는 5명의 학생에게 1인당 20만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10회동기회 기능대회 참가선수

격려금전달

10회동기회(회장 조충호)에서는 2002. 10. 14(월) 모교를 방문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모교 선수단의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거제 사업자동문 모교 배관 기능특활생

자원금 전달

거제동문회 소속 사업자 동문 10명이 모교 특활생들의 기능향상을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1차로 200만원을 모아 2002년 10월 9일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모교 산업설비부장인 예석수 모교 담당부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제18회 동기회 결성

18회 동문 11명이 9, 10(화) 서면에서 모여 동기회를 결성기로 하고 회장에 이병설, 총무에 김일수 동문을 선출하였다.

8회동기회가 후배들의 동기회 결성을 지원코자 총무가 참석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거제동문회 체육대회 개최

10월 6일(일) 아주동 공설운동장에서 거제동문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가을 날씨답지 않게 비가 내렸지만 대우조선(회장 오선태)과 삼성중공업(회장 최석균) 등에서 약 20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축구와 제기차기, 줄다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을 하는 한편 거제동문회다운 푸짐한 먹거리와 경품이 나와 참석한 동문들을 즐겁게 하였다.

총동창회 제27차 임시총회 개최

지난 10월 19일(토) 모교 해송문화홀에서 제27차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의안으로 제23대 동창회장 및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회장추천위원회(위원장 강기봉 자문위원장)가 추천한 현 구영석 회장과 김천환, 김광환 감사가 민정일치로 선임되었다. 제23대 회장단의 임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동창회보 주제 공모작 시상

동창회보 제호 공모에서 주제로 선정된 '부상을 바라보며'를 출품한 강승원(13회) 동문에게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시상을 하였다.

본인은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시상금으로 받은 50만원을 동창회기금으로 총동창회에 기부하였다.

제13회 졸업20주년 모교방문의 날

제13회 졸업 2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



사가 10월 19일(토) 모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약 4백 5십 여명의 졸업생과 가족, 모교의 박해종 교장선생님과 졸업 당시의 은사님들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구영석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회장단과 각 기, 지역 동문회장단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동창회기금조성 현황

11월 28일 현재 동창회 기금 조성액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비고
기 조성액(4.10까지)	124,040,445	
3회 분담금	5,000,000	
7회 분담금	5,000,000	
13회 분담금	10,000,000	
골프대회 임여금	2,000,000	
강승원(13회)	500,000	
강원연합동문회	300,000	
계	146,840,445	

제30차 기능탑제전 개최

지난 10월 20일(일) 제30차 기능탑제전이

유진설비주식회사

공장 PLANT 설비공사/건축기계 설비공사/CLEAN ROOM 설비공사 전문

대표이사 정기영(5회)

H.P: 011-797-8378

우.137-839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5-2 항영빌딩 3층
TEL: 02)535-7050(교환28번) 직통: 02)535-3384
FAX: 02)532-4103

www.woojini.com e-mail: jky@woojini.com

LG전자 공조기 특판

http://www.lgaircon whisen.co.kr

대표이사 최재식(11회)

H.P: 011-328-2031

- 시스템 에어컨
 - 에어컨, 온풍기
 - 업소용냉동, 냉장고
 - 공기 정화기
 - 냉난방설비유지보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79번지
대표전화: 032-812-2100
남구점: 032-881-8100
FAX: 032-814-1700
E-mail: whisen2100@hanmail.net

이들을 찾기보다는 한가루의 꽃을 끌라
그리스도의 미덕을 구속

제8회 동기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우천 관계로 행사를 체육관으로 옮겨 진행을 하였으며, 약 1,20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체육관에서는 기·지역별 족구경기와 줄다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사생대회 등을 하였으며, 해송문화홀에서는 동문작품전시회, 종합관에서는 김천일(4회)동문 사진전이 열렸다.

또 체육관 건물 2층에서는 주마다 열려 막걸리와 파전, 수육 등을 공짜로 판매하여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체육관으로 갑자기 장소를 옮김에 따라 진행상의 손오도 생기고 혼잡하기도 하였으나,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내년 제31차 기능탑제전은 9회가 주관한다.

동문작품전시회

제30차 기능탑제전의 문화행사로 열린 동문작품전시회가 문전성시를 이뤘다.

각 분야별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작가 5명의 작품으로 구성한 이번 전시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 보였다.

참여 작가는 송권직(8회, 서양화), 곽정우(8회, 서예), 윤병성(9회, 서양화), 김재희(10회, 사진), 김성규(11회, 유화) 동문이다.

김천일(4회) 동문 사진 작품전

제30차 기능탑제전을 기념하는 김천일 사진작품전이 4회 동기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모교 종합관에서 10월 19일(토)부터 10월 27일(일)까지 1주일간 개최되었으며,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부산기공인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부산기공인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



로 기획된 전시회였다.

제1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부기회가 주최하고 총동창회가 후원한 '제1회 부산기공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21일(일) 양산에 있는 A-ONE CC에서 열렸다.

우려했던 날씨도 화창하게 개어 동문 및 가족 2백12명(가족 28명 포함)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기별대항 단체전의 우승은 8회가, 준우승은 12회, 3위는 10회가 차지하였으며, 뉴페리어 방식으로 치러진 개인전 우승은 김재문(9) 동문이, 대회에서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챔피언상은 프로로 벼금가는 설력을 발휘한 이종열(9) 동문이 72타로 수상하였다.

동문가족전의 우승은 정경숙 여사(2회 배상수 동문의 부인)가, 챔피언은 84타를 친 이순복 여사(5회 심상호 동문 부인)가 차지하였다.

또 대회 임여금 2백만원을 동창회기금으로 총동창회에 전달하였다.

경인동문회 임시총회 개최

경인동문회에서는 11.18(수) 19시에 구로역 부근의 청해수산회집에서 각 기 대표를 포함한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임시총회는 정상구 회장이 해외사업 관계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후임에 정기영 동문(5회 전기과)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정기영회장은 재경동문회가 3천여 재

동문들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소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동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재경 부기회 결산총회 개최

재경부기회 결산총회가 11월 27일(수) 개최되었으며, 신임회장에 최평영(2회) 동문이 추대되었다. 총회 개최전 재경부기회장배 대회를 경기도 한일골프장 동코스에서 28명(7개 팀)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문 소식〉

- 최병철(9회) 동문-석탑산업훈장 수상
- (주)이우 대표이사인 최병철 동문이 제39회 무역의 날(11월 29일)을 맞아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주)이우는 5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 강래철(11회) 동문-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강원대학교 사무국 시설과에 재직중인 강래철 동문이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한 2002년 공무원 제안에서 평가부하 감소를 위한 폐카이지 에어컨 원격제어장치 설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모임 안내〉

- 부산지역 8회동기회 송년회
- 12. 18(수) 19:00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
- 제18회 동기회 송년모임
- 12. 18(수) 19:00 아방궁(051-556-3737)
롯데백화점 동래점 옆
- 연락: 회장 이병설 (011-488-5781)
- 진주동문회 송년회
- 12. 21(토) 18:00 참복뷔페

〈모교 소식〉

제24회 기능축전 개최

모교 학생회가 주최하는 제24회 기능축전이 지난 10월 25일(금)부터 10월 27일(일)까지 3일간 치러졌다.

기능전, 학예전, 씨클전, 장산한마당, 장산한마당, 기네스게임 등으로 치러진 이번 축제에는 모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타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마치 남녀공학 같은 기분속에 치러졌다.

또한 선생님들과 학부모, 일부 동문들도 관심있게 행사를 지켜보며 격려도 하였다.

세부 행사로는 학과별 특성을 살린 기능전과 시화전과 미전으로 구성된 학예전이 개최되었으며, 김천일(4회)동문 사진 작품전이 특별전으로 개최되었다. 또 씨클전과 기네스게임도 펼쳐졌다.

해송문화홀에서 개최된 장산한마당에는 민속반의 사물놀이공연, 힙합댄스공연, 기타연주회, 악대부 연주회, 법률 연공이 펼쳐졌으며, 일요일 3시에 개최된 장산한마당은 예선을 거쳐 진출한 학생들이 열창을 하며 가수 못지 않은 무대매너를 선보이는 등 축제의 재미를 더하였다.

정문 수위실 및 아이치 신축 계획

개교 아래 우리 동문들을 맞아주던 모교의 정문 수위실과 아이치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문 아이치는 모교의 얼굴이자 우리 동문들의 기습속에 영원한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는 조형물이다.

건물의 노후와 수위실의 기능상 문제로 철거 후 신축할 계획에 대해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동창회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의견을 주시길...

동문명부 발간 소식

동문명부 발간의 자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광고 원고 수집의 자연과 방대한 데이터의 정리, 책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부는 12월 말경 발간 예정입니다.

동문명부 대금 납부 안내

동문명부의 발간이 임박했습니다.

동문명부를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동문들의 협조가 사무국의 업무를 대폭 줄이고 동문들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니다.

명부는 12월 말부터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입금 확인 후 등기로 발송하겠습니다.

명부대금 : 30,000원

국민은행

119-01-0362-921 황해구(부산기공동문명부)

※입금시 반드시 이름 뒤에 출입기수를 표기 바랍니다. 기 입금자 중 기수 표기를 못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예) 황해구8



동창회보의 광고는

동문과의 유대를 더욱 가깝게 합니다.

"광고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둠속에서 치녀에게 윙크를 하는 것과 같다. 당신 자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만 남들은 몰라주는 것이다." (S.H. 브리트)

광고란 직접적인 매출증대 이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등 현대의 기업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동창회보는 2만3천여명에 이르는 우리 동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동창회 활동과 동문 상호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전국의 2만3천여 동문들에게 귀사를 알리십시오. 동문이란 동질감이 광고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왕이면 동문'이란 심리가 누구에게나 작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또 광고를 함으로써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만족감은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광고를 희망하는 동문 또는 업체는 동창회 사무국으로!!

Tel: 051-742-6746/0093,

Fax: 051-746-6747

email: samukuk@hanmir.com

황해횟집

동해에 오시면 황해횟집에 들리세요. 펄떡펄떡 뛰는 회가 있습니다.

최태환(10회 기계과)

강원도 동해시 목호동 2-447

전화 033-532-7300. 016-357-7369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

글/ 황해구 (8회, 사무국장)

누구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을 움직이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 누구나 바라는 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바램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

효과적인 대화의 기법을 통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고안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정-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가 있다.

이 코스는 참가자 내면의 자신감을 계발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익히면서 단계별,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강력한 리더십 과정이다.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는 1945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캐나다에서 크게 꽂피웠으며, 우리나라에는 1998년 도입되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는 비영리, 비종교적이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는 모두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는 1주일에 한번 3시간씩 11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코스는 스스로 실천을 통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성과가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을 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과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계발
사람의 이름과 정보를 기억하는데 유용한 기역방법을 훈련한다.

제2과 낭독식 연설과 의사소통 기법
의사소통의 기본 형태인 낭독에 대해 훈련한다.

제3과 실물을 보여주며 말하기
보여주며 말하는 것은 청중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제스처와 자신

에게 익숙하면서도 흥미있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훈련.

제4과 연사 소개법과 감사의 말

연설에서 불필요한 상투어를 없애고, 짧은 시간에 요점을 밀하는 훈련.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여 초청연사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제5과 효과적인 시상과 수상방법

선물이나 상을 받는 사람이 특별한 느낌을 갖도록 하려면 논리적인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꼭 맞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방법 훈련.

제6과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1부

긍정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좋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대화는 구성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이해해야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제7과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2부

자의식을 극복하고 말에 생기와 삶을 불어 넣는 법,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

제8과 사람을 움직이는 힘-대화의 미술

우리 자신이 표현하는 말, 소리, 제스처에 의해서 색다른 느낌을 경험해 본다.

표현의 필수적인 요소를

익힌다.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끄집어 내어 자신만의 고유한 힘을 기르는 훈련.

제9과 즉흥연설과 세일즈 기법

'즉석에서 말하기'를 통해 경험과 자신감을��운다. 자신 안에 있는

방대한 경험의 산맥을 발견하여 발표에 이를 포함시키는 훈련.

제10과 크리스토퍼 실천 과제

리더로서 주위에 온정과 작은 빛을 주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개선을 위해 스스로 실행할 것을 공약한다.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제11과 종합 발표와 수료식

수료증을 받음으로써 동료들과 강사에게 인정을 받는다. 존중하는 사람들과 사교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는 생각을 잘 정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용기와 잠재능력을 개발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여 함께 나누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업체나 직장에서 훌륭한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동문은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의 문을 두드릴 것을 권한다.

문의처

한국크리스토퍼리더십센터

T.02-598-7183

<http://www.christopher.co.kr>,

영남센터: T.053-356-4549,

부산: 황해구(051-742-0093, 016-845-7979)

GM 대우자동차 새진해영업소

GM대우출범기념 신차 보증기간 연장 3년 6만km
엔진미션 5년 10만km

소장 마상철(8회)

경남 진해시 풍호동 506-12
전화 055-545-1497 휴대폰 011-862-1497
jhma56@dm.co.kr

이진복 동문(8회, 동래구청장)을 찾아서

인터뷰 / 박경식(24회)



“동문 각자가 동창회의 주인이 되자”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의 요람,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배출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히, 과거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 가운데 선발된 선배동문들 중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동문들이 많다.

8회 이진복 동문은 본교 출신 중 정치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는 얼마전 본교에서 열렸던 제30차기 능탑제전 대회장으로 행사를 주도하기도 한 열성 동문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6일 부산 동래구청장실에서 이진복 동문을 만났다.

Q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치 분야는 특히 생소한 분야다. 정치 입문은 언제였으며 계기는 무엇이었나?

- 약 21년 전에 현 국회의장이신 박관용 의원

을 도운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관용 의원과 고락을 함께 했다.

Q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 우리나라 정치가 주로 인맥, 특히 학연이나 지역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가 많아서 이렇다 할 인맥이 없어서 입문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학교 출신 대부분이 그렇듯이 한다면 하는, 그

러니까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닌가. 부족한 인맥과 학연, 지역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만회했다.

Q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문들의 힘이 컸다고 하던데.

- 선거 중에 우리 동문들이 매일매일 팀을 짜서 부인들까지 운동에 동참했다. 아무런 보수도 없이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다. 모든 동문들이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후 일일이 인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

구청장이 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부산기계공고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 그래서 모교 광고도 좀 되지 않았나 싶다. 재학생들 부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Q 정치는 조직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경험자로서 부산기계공고동창회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 일단 우리 동문들은 서로간의 정이 많이 없는 것 같다. 물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같은 동기나 가까운 기수를 제외하고는 남 보듯 하는 것이 대다수다. 아무래도 같은 계통 직업이 많기 때문에 경쟁 의식이 많아진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한다. 또 실업계 출신이라는 것에서 오는 한정된 활동능력이 동창회 발전을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

격조 있는 요리, 맛깔스런 음식

산채마당

산채 돌솥 쌈정식/쇠고기 버섯전골/생삼겹살 한방요리

오재호(4회 전기과)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750-70
롯데백화점 동래점 옆
전화 051-557-3883

윤용하의 노래교실

100-550-810 (파란색 100) 블루

다. 그래서 재학생들부터라도 다양한 사회진출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분야에 진출한 동문들의 힘이 합쳐질 때 보다 부산기계공고동창회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Q 선배로서 현 재학생들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 학교와 동창회 관계는 이와 잇몸과 같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선배들은 후배들이 불만일 것이고, 후배들은 뭣 하나 해주지 않는 선배들이 불만일 것이다. 같은 불만이라면 무조건 동창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해도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업계 학생들 중에 인문계와 비교해 스스로 치지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부산기계공고 출신들은 어딜 가나 최고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선배들이 그랬고, 후배들 역시 마찬가지다.

동창회 역시 후배들에게 동창회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재학생들이 동창회에 들어오면 뭔가 얻을게 있어야 할 게 아닌가.

Q 기능탑제전 준비위원장으로 올해 기능탑제전을 평가한다면?

- 올해 기능탑제전은 동문들의 끼를 한군데 모아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제대로 치뤄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준비했던 것의 30% 정도만 선보였으니… 이제 기능탑제전은 단순히 동창회 체육대회가 아니라 동문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응축된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번 행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확은 기능탑제전을 준비하는 해당 기수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Q 끝으로 동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 벌써 올해도 저물어 가는데 동문들 중에서는 내가 올 한 해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 감사하기만 하다. 우리 동문들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 나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줄로 안다.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물론 동창회 일도 열심히 하겠다.

나는 늘 '부산기계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라는 동창회 슬로건에 가장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동창회의 주인은 나와 여러분이다. 모두 동참해서 힘을 모아 동창회 재건에 앞장서자.

서부산 꽃집/조경

꽃을 보는 미움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홍경을 새롭게 바꾸어 봄으로세요.

조재환(18회 기계과)

www.pink-rose.co.kr

경남 마산시 오동동 235-44

전화 055-241-9379, 011-567-9379

팩스 055-225-0495 jo9379@hanmail.net

설 선물용 껍질채 먹는 배 예약



황새골과수원(대표 김영곤, 8회)에서는 동문들을 위해 설날 선물용 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고 한다.

동창회 사무국을 통해 사전에 예약한 동문에 대해 황새골과수원이 자랑하는 '껍질채 먹는 배'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 필요한 동문은 이용하기를 바란다.

예약 판매가격 : 15kg 1상자-4만원
(택배비 포함)

- 현재 배의 시중가는 6만원 정도임

제품 특징 :

1. 환경부 인증 울산 저농약 배 1호
2. 안심하고 껍질채 먹을 수 있음
3.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저상성이 뛰어남
4. 꽃 필 무렵인 6월 이후엔 일체의 농약을 쓰지 않고 현미식초, 목초액, 유인등 살충주 등으로 병충해 방제
5.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재배함

예약:

사무국 전화 051-742-6746,

samukuk@hanmir.com

변화된 동창회보를 보면서…!

장규봉 (6회 전기과) 016-9665-0001



회보는……!

그야말로 신선한 감동이 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먹을 때마다 책장을 넘기며 펼쳐보는 내 모습이 이상했던지 아내는 그 얇은 회보를 한 달이다 되어 가는 지금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기억에서 지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간혹 친구들을 만나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과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서 위치를 확보한 동기생들이 많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 본인 스스로 어떤 이질감에 빠졌었나 봅니다.

그러나 대학 친구들을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친구는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야!”라는 말을 술자리에서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고등학교 친구는 30년이 흘러 간 지금은 저 멀리가 버린 듯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를 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동창회보’를
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를 깨끗이 잊고 있는
졸업생에게 배달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나를 찾을 리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얇은 한 권의 회보가 우편물이 되어 집으로 배달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동창회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얇은 회보의 뛰어난 편집력과 내용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꺼이 동창회의 일원이 되어 보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 가지의 제언은 동창명부가 그 수명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걱정입니다.

과거 수년 전에 발행된 동창명부가 저에게도 있지만 모두가 주소와 직장이 바뀌어 의미없는 명부가 되어버렸는데……

비싼 비용으로 개인이 구입하기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 봅니다. 발행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지만 광고료 등으로 충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권을 구입하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동창회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니까요!~!

새 출발하는 부산기계고업고등학교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어드립니다.

〈회답하는 글〉

● 장규봉 동문님의 글과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동창회는 사무국 상근직원이 없이 관심 있는 소수 동문들의 힘으로 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 자료가 매우 빈약했고, 그런 상태에서 전 동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판매대금을 3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동창회 수입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타 동창회의 명부대금도 3만 원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강승원 동문님의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호(2호)에서 제안하신 ‘동창회’와 ‘동문회’의 통일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창회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해구

중앙부동산 컨설팅

창원 상업지역내 상가분양 및 임대전문

대표 조현주 (8회 전기과)
HP.011-563-4224

경남 창원시 상남동 상남시장 내 B동 260호
Tel.055-262-3000. Fax.055-263-7576
johj3000@hanmir.com



대우자동차역삼정비(주)

승용차 정비 전문 서비스 센터

대표이사 신유식 (13회 배관과) HP.011-9882-82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3-6 (상록회관 뒤)

TEL:02-508-8211 FAX:02-508-8216

야간 긴급 출동 서비스 TEL:02-797-8255

· 보험 및 일반수리 · 순정부품판매 · 차량정기점검 및 검사
· 대우 무상 점검서비스 · 예약정비 · HAPPY CALL 제도
· ONE PLUS서비스 · 오일 및 소모품 교환

최첨단 시설을 이용한 판금작업 / 특수 열처리 도장

윤용하의 노래교실

- 최대진(16회/지필3기)

보리밭에 갔었네, 거두어들일 것 하나 없는 가을.

이삭들이 어깨를 이으며 슬프지, 세상은 슬프지, 그렇지.

나에게 노래를 하데

폐교의 어둑한 복도 끝에서 날 올려다보는

그리움을 만났네. 쓰게 아주 쓰게 웃데

생각하면 멀리도 떠나왔었네.

사람들의 저녁 식탁을 상상하며 새들을 배웅하고 오는 길이었네

풍경들이 그림자를 끌고 귀가를 서두를 즈음

용해야 하고 그리운 것들을 불러 보았네.

빈 하늘

저녁놀

보리밭

그런 것들의 이름을

이삭들이 아프지, 남아서 아프지, 그렇지

노래를 하데

실로폰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은데

아파서 남은 것들이 둑방으로 몰려오고

저녁을 보러 갔었네. 나눌 것 하나 없는 식탁을 나와

따라 나온 그리움이 너무 많아

모두 울데 그렇고 그런 노래로 울데

거제 동문화의 활동

글/ 하윤철 (26회, 019-536-1628)

거제동문화는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소 동문화를 중심으로 거제도에 거주하는 여러 동문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삼성 조선소 290명, 대우조선 210명과 그 외 50여명 등 총 550여명이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이 곳 거제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동문들이 하나둘씩 모인지 20여년 이 지난 지금, 그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조직으로 거제동문화는 자리하고 있다. 또 우리 동문들은 부산기공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들이 삼성과 대우조선소의 요소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땀흘리고 있다. 비록 같은 해에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을 영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정은 동문으로서의 결속력을 더

욱 견고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인정 많은 우리 동문들은 여기저기 사당의 손길을 뺏으며 삐막해져 가는 이 사회에 난로처럼 따뜻한 존재가 되어 수많은 이야기끼리를 만들어 가는 모임이기도 하다.

거제동문화의 주요 행사로는 매년 대우와 삼성이 공동주최하는 체육대회가 있다.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치르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동문화와 동기회의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체육대회는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잠시 잊고 살았던 동문들과의 뜨거운 우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행사이다.

금년의 체육대회는 10월 6일(일) 아주동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가을날씨답지 않게 비가 내렸지만 약

20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하여 축구와 제기차기, 홀라후프돌리기, 줄다리기 등의 경기를 하였다. 푸짐한 먹거리와 경품으로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동문간의 정을 만끽하였다. 또 계절별로 개최하는 각종 등산이나 야유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또한 동문뿐 아니라 동문가족 모두의 동문사랑, 가족사랑을 확인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동문들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임의 탈피를 위해 여기 저기 따스함을 필요로 하는 곳에 힘을 아끼지 않는 따듯한 모임도 있다. 불우이웃 돋기는 물론 주말이 되면 거제도 구석구석의 정화 활동에 힘을 아끼지 않는 동백봉사단 또한 거제동문화의 자랑이다.

동창회보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재거제 부산기계공고 동문화

대우 회장 오선택 (13회) / 총무 조연호(13회)
삼성 회장 최석균 (8회) / 총무 오민세 (13회)

“제대로 된 일식 요리 맛의 진수를 뵈 드리겠습니다”

박명호와 박명식 형제가 운영하는 일식 요리점 진수사를 찾아
취재 / 박경식(24회)

부산기계공고 동문 가운데에서 어떤 분야든 기능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문이 있을까?

지금이야 기능사 자격증의 가치가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도 국고고시를 봐야만 팔 수 있는 자격증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동문은 손재주 하나는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비록 전공은 아니지만 손재주와 연관된 일을 하는 동문들을 꽤 볼 수 있다. 요리는 전공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손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역시 손재주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호에 소개했던 서정희 동문이 그러했듯이 이번 호에 소개하는 박명식(24회 기계제도과 졸업)동문도 현재 일식요리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진수사(眞壽司)는 박명식 동문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일식 전문점이다. 먼저 일식 요리를 시작한 것은 형 박명호씨였다.

“요리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습니다. 딱히 요리사가 되어보겠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는데 주변 여건이 되다 보니 어느새 제가 가야할 길이 보이더군요. 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척 즐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까 일

식 요리더라고요. 일식 요리는 주방장과 손님 이 테이블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거든요”



대표 박명호

이 일을 즐긴다는 박명호씨는 그의 말처럼 음식을 만드는 틈틈히 손님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때는 친구와 같이, 때로는 상담자처럼 친근한 맛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박명식 동문은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학교 졸업하고 몇 군데서 일을 해봤는데 적성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제게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마침 형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권하였다군요. 자기는 부산에서, 저는 서울에서 이 일을 배워서 나중에 돌아서 함께 가게를 하자구요. 그래서 저도 얼마전까지 서울에 있는 일식 전문점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 형님이 가게를 개업하면서 이 곳으로 오게 된 거죠.

저요? 아직 형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어엿한 정식 요리

사가 되어야죠”

군대보다 더 군기가 세다는 주방 안이지만 우애 깊은 두 형제가 함께 있는 진수사의 주방은 늘 훈훈하기만 하다. 이 우애가 만들어내는 음식 맛은 또 얼마나 따뜻할까?

“딱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해산물을 많이 다루는 요리이니 만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장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와 직접 거래해서 좋은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명식 동문은 자신이 아직 메인 요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료에서 만큼은 특급 호텔 일식 부에 비교해도 손색없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마이스터인 형 박명호씨 밑에서 도체로 착실히 요리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명식 동문은 그 동안 닦아온 요리실력을 바탕으로 정식 조리사 시험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제 곧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 다른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은 이들도 있지만 자신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단다. 그래서 한치 돌아볼 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필자와 동기이기도 한 박명식 동문은 진수사가 필자와 다른 동기들에게는 물론 부산기계동문 모두의 사랑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어느 요리든 간에 최고의 양념은 정성입니다” 두 형제가 우애로 열어논 진수사. 가게 이름처럼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요리에 그대로 담긴 듯하다.



日式料理専門



眞壽司



“맛의 진수를 경험하십시오”

“저요? 아직 형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한 재료에서만큼은 특급 호텔 일식부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眞壽司

부산시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35-3
Tel.051-557-0676. h.p.016-845-0676
e-mail. jisusa@hanmail.net